

五行和鍼法の 이론적 고찰 및 응용

심성흠 · 감철우* · 김진영 · 백상인 · 이병권 · 손호영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heory Study and Work of Ohaeng-Hwa Acupuncture

Sung-Heum Sim, Cheol-Woo Kam, Byung-Gwon Lee, Jin-Young Kim,
Sang-In Baek, Ho-Young Son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port on the theory of Ohaeng-Hwa Acupuncture Therapy.

Methods : The theory of Ohaeng-Hwa Acupuncture Therapy(OHAT; 五行和針法) is a part of the Five Elements Theory unique to Korea. This research Classic of Difficulty Issues-Nan Jing review Ohaeng-Hwa Acupuncture Therapy.

Results : OHAT, created and developed by Jae-hoon Song, integrates the victor-vanquished as well as the son-mother relationship of the Five Elements of breakdown and restoration of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nd also, it provides resources and data on The seventy fifth Nan(75難), The sixty ninth Nan(69難) of Classic of Difficulty Issues - Nan Jin 75, 69. OHAT establishes objectiveness and accuracy of diagnosis based upon the traditional method and procedure of pulse taking. In OHAT, a person's state of illness is diagnosed by applying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alpitation of the pulse. It is the fact that the pulse varies according to the state, and that OHAT treatment has proven the positive results by using the victor-vanquished relationship on The Nan Jin 75. On the basis of this, it is necessary to add the sixty ninth Nan(69難), to research the theory of the generation of the Five Element.

Conclusions : Ohaeng-Hwa Acupuncture is very effective in treating the wide range of illness, and thus it has gained an increasing attention of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oriental medicine. However, it is the first theoretical attempt to the clinical research and scientific methodology of Ohaeng(Five) Ohaeng-Hwa Acupuncture, and more active Ohaeng-Hwa Acupuncture R&D is being conducted nationwide.

Keywords : Ohaeng-Hwa acupuncture(五行和鍼法), Ohaeng-acupuncture(五行鍼法), The seventy fifth Nan(75難), The sixty ninth Nan(69難),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alpitation of the pulse(比較脈診法).

1. 서론

鍼灸療法은 經絡學說, 陰陽五行學說, 臟象學說 등이 응용된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을

근거로 체표 상의 일정한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줌으로써 생체에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五行鍼法은 五行의 相生, 相克 원리를 바탕으로 肘膝以下에 분포한 十二經脈의 五俞穴을 이용하여 臟腑와 經絡의 陰陽氣血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鍼法

* 교신저자: 감철우,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el : 051-850-8650, E-mail : drkam@paran.com

· 투고 : 2009/08/26 심사 : 2009/12/18 채택 : 2009/12/21

이다¹⁾.

五行鍼法은 조선시대에 舍岩道人이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결합하여 自他經에서 補瀉穴을 取하는 舍岩陰陽五行鍼法을 창안하여 후세에 五行鍼法의 基本이 되고 있다.

인체는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서 어떤 經脈과 臟腑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는 相生關係와 동시에 相克關係가 존재하게 되며,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도 本臟이나 本經이 邪氣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臟이나 經으로 轉變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료 또한 병이 있는 本臟腑와 本經脈에 대해 補虛瀉實하면서 五行相克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치료원칙을 따르게 된다²⁾.

이 중 五行和鍼法은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盛衰 및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집대성하여 만든 五行鍼法이며, 각 체질을 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으로 나누고 이것을 比較脈診法으로 구분하는 鍼法이다.

五行和鍼法은 송³⁾의 연구가 처음이고, 이론적 고찰은 2005년도 五行和鍼法의 臟方⁴⁾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2008년에 腑方⁵⁾이 각각 소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五行和針法에 대한 研究는 難經 75難과 69難의 비교 고찰에만 국한 되어 있었다. 이에 저자는 難經 75難을 중심으로 한 五行和鍼法의 臟方과 難經 69難을 근거로 한 腑方을 고찰하였다. 또한 比較脈診法을 통한 임상에서의 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五行和鍼法의 臟方(難經 75難을 중심)과 腑方(難經 69難을 중심)을 알아보자. 또한 比較脈診法을 통한 다섯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1. 五行和鍼法의 臟方

五行和鍼法의 臟方은 難經 75難을 근거로 만들어지며, 五臟相克의 原理를 이용한다.

1) 五行和鍼法에 따른 難經 75難의 해석

【原文】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⁶⁾.

“經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難經의 75難에서 말하길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하면 瀉南方 補北方을 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東方實 西方虛는 症狀을 나타내고, 瀉南方 補北方은 治療를 말한다.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金水木火土가

마땅히 연속적으로 서로를 평하게 한다. 예를 들면 木이 實하면 金이 그것을 평하게 한다. 難經 75難에서는 五行의 理致를 相克으로 해석하고 있다.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肝이 實하고 肺가 虛한 경우에, 南方의 火를 瀉하고 北方의 水를 補하면 된다. 즉 心을 瀉하고 腎을 補하라는 의미이다. 肝實 肺虛는 외부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治療가 腎을 補하고 心을 瀉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腎은 虛할 것이고, 心은 實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南方의 火는 木의 子이고, 北方의 水는 木의 母이다. 이 조문은 東方實 西方虛의 상황에서 肝實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水가 火를 勝하고, 子는 母를 實하게 하고 母는 子를 虛하게 한다. 위의 조문에서 東方實 西方虛의 상황에서 기준은 東方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木의 子인 火가 母인 木을 實하게 한다. 이것은 病因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火가 實하게 되면 火가 金을 克하게 된다. 그러면 金이 虛해져 金克木이 되지 않아 木이 實하게 된다. 母는 子로 하여금 虛하게 한다. 즉, 마찬가지로 기준은 木이 된다. 木의 母인 水가 그 子인 木을 虛하게 한다. 이것은 治療原則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水를 補하면 水克火하여 實한 火가 虛해져 제자리를 잡으면 火가 金을 克하는 힘이 약해져서 虛한

金이 實해지면서 제자리를 잡고 그리하여 건강해진 金이 충분히 木을 克하여 實한 木을 평하게 한다. 그렇다면 원래 水는 虛하다고 볼 수 있다.

“欲令金不得平木也.” 그러므로 瀉火하고 補水하면 金으로 하여금 木을 평하게 한다. 여기서 不자는 餘字로 보고 빼야한다.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이 條文은 나타난 현상인 木實, 金虛를 먼저 治療하는 것이 아니라, 그 根本인 虛해진 것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결국 木實 金虛인의 제일 기본병리는 水虛이다. 木實 金虛의 환자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水가 虛한 것이 根源이 되고 그 다음이 火가 實한 것이다.

難經 75難을 五行의 虛實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木은 實하고 金은 虛하며 木의 子인 火는 瀉法을 사용하기 때문에 實하고 木의 母인 水는 補法을 사용하기 때문에 虛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土이다. 土의 경우는 水를 補法을 사용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土克水를 할 정도로 세력이 되기 때문에 虛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木이 實하기 때문에 木克土하여 土가 虛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五行和鍼法에서는 이러한 臟腑를 中臟器라고 한다. 아직 邪氣를 받지 않은 臟器 내지는 虛實兩方으로 轉變 가능한 臟器로 보고 있다. 즉 虛實 판별이 불가능한 臟器로 본다. 難經 53難에서 “經言 七傳者死, 問臟者生, 何謂也. 然 七傳者, 傳其所勝也. 問臟者, 傳其子也. 何以言之, 假令心病傳肺 肺傳肝, 肝傳脾, 脾傳腎, 腎傳心, 一臟不再傷, 故

言七傳者死也。假令心病傳脾，脾傳肺，肺傳腎，腎傳肝，肝傳心，是爲子母相傳，竟而復始，如環無端，故曰生也。”라고 했다⁷⁾. 여기서 말하는 七傳은 勝하는 곳, 즉 克하는 臟으로 傳해지는 것이다. 七傳에 대한 역대 주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難經集注에서 呂廣은 “七，當爲次字之誤也。此下，有間字，卽知上當爲次.”라고 하였고, 滑壽는 難經本義에서 紀氏의 말을 인용하여 “自心而始，以次相傳，至肺之再，是七傳也”라고 하였고, 難經校注에서도 呂廣의 說을 考證하였는데 “七은 次와 통하며 또 漆을 次로 쓰는 일이 많다.”고 하였으며, 難經譯釋에서도 呂廣의 說이 옳다고 하면서 “七傳은 次傳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의 病傳에서도 “諸病以次相傳，如是者，皆有死期，不可刺也。間一臟及二三四臟者，乃可刺也.”라고 하였는데 역대 주가들의 의견과 같다⁸⁾. 가령 心病이 肺로 전해지면, 肺는 肝으로 전하고, 肝은 脾로 전하고, 脾는 腎으로 전하고, 腎은 心으로 전한다. 한 臟은 두 번 傷하지 못하며(一臟不再傷) 七傳하면 한 臟이 두 번 傷하는 것이므로 죽는다고 한 것이다. 五行和鍼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中臟器의 概念으로 보고 難經 75難에서는 土가 그러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즉 한 臟이 두 번 傷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⁹⁾.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虛해진 장기는 腎이고 腎이 虛해져 心이 實해지고 心이 實해져 肺가 虛해지고 肺가 虛해져 肝이 實해졌다. 五行和鍼法에서는 이를 시간적 추이의 虛實이라 한다. 여기서의 虛實은 절대적 비교가 아니다. 예를 들면 難經 75難에서 實한

臟인 心과 肝중 어느 것이 더 實한지, 虛한臟인 肺와 腎중 어느 것이 더 虛한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木實金虛人에서 五臟의 시간적 추이의 虛實은 心 > 肝 > 脾 > 肺 > 腎이 된다. 정리하면 Figure 1(작은 원 : 虛, 큰 원 : 實, 별 : 中臟器. 이하 같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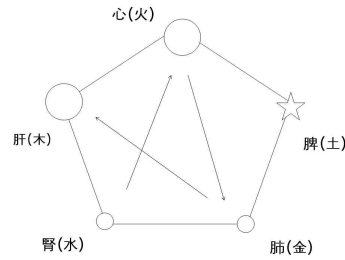


Figure 1. 木實金虛人의 五行虛實 관계

2) 五行和鍼法の 五臟 처방

五行和鍼法에서는 木實金虛한 경우에 木實金虛人이라 보고 그 기본처방은 아래와 같다.

難經의 75難에서 “東方實，西方虛，瀉南方，補北方”이라고 했다. 고로 治療原則은 北方腎을 補하고 南方心을 瀉하면 된다. 그러므로 木實金虛人에서 처방은 水穴을 補하고, 火穴을 瀉하는 것이 된다. 그 중 五行和鍼法은 經絡과 五俞穴의 五行이 일치하는 眞五行穴을 사용한다. 따라서 水의 水穴인 陰谷을 補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다음으로 火의 火穴인 少府를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의 症狀과 處方도 유추 가능하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木實金虛人

陰谷 補(水之水) 少府 瀉(火之火)

② 火實水虛人

大敦 補(木之木) 太白 瀉(土之土)

③ 土實木虛人

少府 補(火之火) 經渠 瀉(金之金)

④ 金實火虛人

太白 補(土之土) 陰谷 瀉(水之水)

⑤ 水實土虛人

經渠 補(金之金) 大敦 瀉(木之木)

2. 五行和鍼法の 腑方

五行和鍼法은 五行의 相生, 相克을 이용한 鍼法이다. 腑方은 臟方의 五行虛實에 의해 類推가 되며, 基本 原理는 夫婦相合五行이다. 그리고 治療方法은 難經 69難을 이용한다.

1) 五行和鍼法에 따른 難經 69難의 해석

【原文】

六十九難曰, 經言虛者補之, 實者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 何謂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生,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⁶⁾.

難經 69難에 “虛者補之”라는 것은 虛할 때는 그 母를 補하라는 뜻이고, “實者瀉之”라는 것은 實할 때는 그 子를 瀉하라는 뜻이다. 또한 “不虛不實, 以經取之”라고 한 것은 아직 邪를 맞지 않은 상태이므로 마땅히 그 經만 取하면 된다¹⁰⁾.

69難에서 제시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는 五行의 相生關係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결국, 臟腑病에서 腑病의 治療原則이 된다.

2) 五行和鍼法の 腑方 類推原理

五行和鍼法の 腑方은 臟方의 五行虛實關係를 바탕으로 해서 類推가 가능하다. 臟方 처방은 五臟病의 傳變을 五行의 相克關係로 보았고, 腑方에서는 相生으로 해석했다. 難經本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難經 69難에서 제시된 것이며,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75難에서 제시된 것이다. 69難에서 제시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五行의 相生關係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75難에서 제시한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五行의 相克關係를 이용하는 방법이다¹¹⁾.

이러한 五行配合, 즉 五俞穴의 陰陽五行理致는 河圖洛書와 天干相合에 根本을 두고 있다.

① 河圖洛書에 의한 臟腑配合

河圖와 洛書에는 時間的인 宇宙의 變化와 空間的인 天地의 實상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 表現되어 있다. 河圖는 天地生成의 體, 相生, 陽을 보여주고 있으며, 洛書는 萬物發展의 用, 相克, 陰을 나타내고 있다.

此事難知에서는 “天六腑氣表, 其體在上, 其用在下, 地五臟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 言陰陽互相爲用, 則天氣左旋而下降, 地氣右旋而上昇, 氣血和, 表裏靜, 上下通, 如天地泰, 然, 人身其小天地乎¹²⁾.”라고 했으며, 李梴의 醫學入門 註에는 “氣屬陽 象天 左旋 血屬陰 象地 右旋 血從氣行 其體 靜而不動故 氣血如磨形 上轉而西 下安不動 雖云不動 自有東

行之意 以其上動下靜 不得不爾也.”라고 하면서 이것은 고로 ‘河圖洛書’라고 했다¹³⁾. 河圖와 洛書를 모양으로 보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 河圖洛書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數로 表現되어 있으며 白圈은 陽數를, 黑圈은 陰數를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自然數의 數列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生數란 創造의 根本數로서 보이지 않는 生命의 本質을 나타내며 萬物의 運命을 決定하므로 命數라고도 부른다.)라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成數란 事物을 完成하는 數로써 完成된 事物은 形體를 이루므로 成數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號稱한다.)라 한다¹⁴⁾.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河圖는 다섯 개의 生數(陽 - 1, 2, 3, 4, 5)로, 다섯 개의 成數(陰 - 6, 7, 8, 9, 10)를 통솔하되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니 대개 그 完全함을 들어 사람에게 보여주어 常數의 體를 말하여 주고 있고, 洛書는 다섯 개의 奇數(陽 - 1, 3, 5, 7, 9)를 4개의 偶數(陰 - 2, 4, 6, 8)를 統率하여 각각 자신의 자리에 居하니 대개 陽에 主하여 陰을 통솔하여 變數의 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체만을 볼 때 河圖는 陽에 洛書는 陰에 배속 된다¹⁴⁾.

또한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五行의 性質은 木, 火, 土, 金, 水로 區分이 된다. 이들 사이의 關係를 相生, 相克이라

한다. 河圖를 보면 北方의 水가 東方의 木을 生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左旋하면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의 過程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으며, 洛書를 보면 北方의 水가 西方의 火를 克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右旋하면서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의 過程으로 進行하고 있다¹⁴⁾.

결론적으로 河圖는 五行의 相生을 보여주고 있으며 屬性은 陽이며, 洛書는 相克을 나타내며 陰이다. 五行和鍼法에서는 이 원리에 의해 五臟은 陰이므로 相克에 六腑는 陽이므로 相生에 배속한다.

② 天干相속에 의한 陰陽五行 배속

天干이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말한다. 이것을 十干이라고도 한다. 甲乙은 木이 되고 丙丁은 火가 되며 戊己는 土가 되고 庚辛은 金이 되며 壬癸는 水가 되어 十干은 곧 五行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五行은 天의 變化를 뜻한다^{15,16)}.

劉溫舒의 素問立式運氣論五에서 “甲丙戊庚壬爲陽 乙丁己辛癸爲陰”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傷寒直格에서는 “凡先言者 爲剛爲陽 後言者 爲柔爲陰也”라 하여 先陽後陰의 이론으로 說明하고 있다¹⁵⁾.

그리고 木火土金水는 陰臟(肝心脾肺腎)과 陽腑(膽小腸胃大腸膀胱)로 配屬한다. 天干의 五行 臟腑配屬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天干의 臟腑配屬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臟腑	膽	肝	小腸	心	胃	脾	大腸	肺	膀胱	腎
五行	木		火		土		金		水	

素問의 五運行大論에서 “土主甲己,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 하여

甲己가 化土하고 乙庚이 化金하고 丙辛이 化水하고 丁壬이 化木하고 戊癸가 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文獻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類經圖翼에서는 “甲剛木 克己柔土爲夫婦而成土運 乙柔木 嫁庚剛金而成金運 丁陰火 配壬陽水而成木運 丙陽火 娶辛柔金而成水運 戊陽土 娶癸陰水而成火運.”이라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甲與己合 乙與庚合 丙與辛合 丁與壬合 戊與癸合也 何以甲與己合 曰中央戊己屬土 畏東方甲乙之木所克 戊屬陽爲兄 己屬陰爲妹 戊兄遂將己妹 嫁與木家 於甲爲妻 庶得陰陽和合而不得傷 所以甲與己合 餘皆然”이라고 했다^{15,16)}. 즉, 陰經의 五輸穴의 五行配屬은 陽經의 五輸穴의 五行配屬과 각각 夫婦五行의 相合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运气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陰經과 陽經에서 五輸穴의 五行配屬이 다름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Table 2, 3과 같다.

Table 2. 天干相合에 따른 陰陽五行 配屬

甲己合	膽 木	脾 土	化土
乙庚合	肝 木	大腸 金	化金
丙辛合	小腸 火	肺 金	化水
丁壬合	心 火	膀胱 水	化木
戊癸合	胃 土	腎 水	化火

Table 3. 十干과 陰陽經의 剛柔配合

五臟皆爲陰柔		六腑皆爲陽剛	
陰井木	乙木爲柔	陽井金	庚金爲剛
陰榮火	丁火爲柔	陽榮水	壬水爲剛
陰俞土	己土爲柔	陽俞木	甲木爲剛
陰經金	辛金爲柔	陽經火	丙火爲剛
陰合水	癸水爲柔	陽合土	戊土爲剛

天干相合의 이론에 따라 陰木인 肝과 陽

金인 大腸, 陰火인 心和 陽水인 膀胱, 陰土인 脾와 陽木인 膽, 陰金인 肺와 陽火인 小腸, 陰水인 腎과 陽土인 胃가 相合하고 있다. 이것을 十二經絡에서 살펴보면 陰經의 五俞穴(井榮輸經合)은 木火土金水로 배열되어 있고, 陽經은 金水木火土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五行和鍼法の의 腑方에서의 五行虛實을 보면 다음과 같다. 難經 75難에서 “東方實, 西方虛”라고 했다. 五行和鍼法은 이러한 상황을 木實金虛人이라고 하고, 臟方에서는 東方實을 木實이라고 했다. 腑方에서는 東方實의 상황을 陰經에서의 木에 相合이 되는 陽經에서의 金이 實하다고 본다. 즉, 東方實은 五行和鍼法の의 가장 큰 전제이며, 이것을 陰經絡에서는 木으로 본 것이며, 腑方에서는 金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五行和鍼法の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陰經에서의 木이 實할때 相合이 되는 陽經에서의 金 역시 實하게 되어 陰經의 木穴을 瀉할 때 陽經의 金穴도 瀉할 수 있다는 뜻이지 經絡穴의 穴性, 穴能이 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五行和鍼法の의 腑方 五行虛實을 類推하는데 基本原理가 된다.

3) 五行和鍼法の의 腑方 처방

難經 75難에 의해서 각 臟의 五行虛實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五行의 天干相合에 의해 六腑의 虛實관계는 類推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75難에 의해 木實金虛人의 경우 肝實 肺虛 心實 腎虛 상태를 알 수 있으며 虛實을 알 수 없는 脾는

中臟器가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五行의 天干相合 원리를 적용하여 類推해보면 大腸實 小腸虛 膀胱實 胃虛 그리고 역시 虛實을 알 수 없는 膽 이렇게 腑의 虛實 관계가 나온다. 아래의 Figur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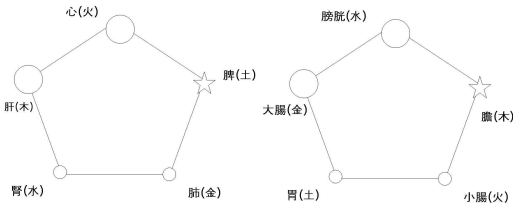


Figure 3. 木實金虛人의 臟腑虛實 관계

여기서 難經 69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原則에 의해서 治療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基準이 필요하다. 69難에는 75難처럼 東方實 西方虛라는 基準이 없다.

예를 들어, 小腸이 虛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虛者補其母라고 했는데 母인 膽은 中臟器이므로 補를 할 수 없다. 다시 膀胱이 實하다라고 하면 實者瀉其子라고 하는데 子인 膽은 中臟器라서 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胃가 虛한 상태라면 母인 小腸이 虛하기 때문에 虛者補其母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大腸이 實한 상황이면 子인 膀胱이 實하므로 實者瀉其子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五行和鍼法의 臟方처럼 難經 69難의 實者瀉其子 虛者補其母의 條件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胃가 虛하고 大腸이 實할 때 小腸을 補하고 膀胱을 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이 무리 없이 적용이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한 五行和鍼法의 腑方 처방은 아래와 같다.

① 木實金虛人(腑方 처방)

木實金虛人의 臟腑虛實 관계는 Figure 3과 같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胃가 虛하고 大腸이 實할 때가 基準이 되고, 治療 방법은 小腸을 우선 補하고 膀胱을 瀉하면 된다. 여기서 穴의 선택은 臟方의 경우와 같이 小腸經의 穴중 火의 火穴인 陽谷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膀胱經의 穴중 水의 水穴인 通谷을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木實金虛人의 腑方 처방이 된다.

陽谷 補(火) 通谷 瀉(水)

② 火實水虛人(腑方 처방)

火實水虛人의 臟腑虛實 관계는 Figure 4와 같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大腸이 虛하고 膀胱이 實할 때가 基準이 되고, 治療 방법은 胃를 우선 補하고 膽을 瀉하면 된다. 여기서 穴의 선택은 臟方의 경우와 같이 胃經의 穴중 土의 土穴인 足三里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膽經의 穴중 木의 木穴인 足臨泣을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火實水虛人의 腑方 처방이 된다.

足三里 補(土) 足臨泣 瀉(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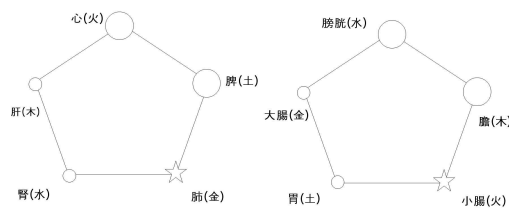


Figure 4. 火實水虛人의 臟腑虛實 관계

③ 土實木虛人(腑方 처방)

土實木虛人의 臟腑虛實 관계는 Figure 5와 같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

의 원칙에 의해서 膀胱이 虛하고 膽이 實할 때가 基準이 되고, 치료 방법은 大腸을 우선 補하고 小腸을 瀉하면 된다. 여기서 穴의 선택은 臟方의 경우와 같이 大腸經의 穴중 金의 金穴인 商陽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小腸經의 穴중 火의 火穴인 陽谷을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土實木虛人의 腑方 처방이 된다.

商陽 補(金) 陽谷 瀉(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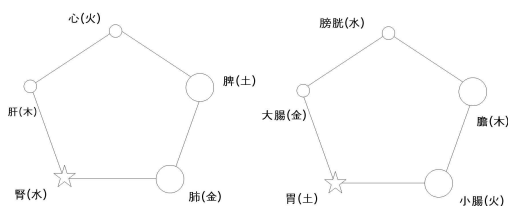


Figure 5. 土實木虛人의 臟腑虛實 관계

④ 金實火虛人(腑方 처방)

金實火虛人의 臟腑虛實 관계는 Figure 6과 같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膽이 虛하고 小腸이 實할 때가 基準이 되고, 치료 방법은 膀胱을 우선 補하고 胃를 瀉하면 된다. 여기서 穴의 선택은 臟方의 경우와 같이 膀胱經의 穴중 水의 水穴인 通谷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胃經의 穴중 土의 土穴인 足三里을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金實火虛人의 腑方 처방이 된다.

通谷 補(水) 足三里 瀉(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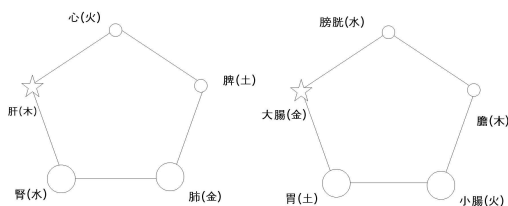


Figure 6. 金實火虛人의 臟腑虛實 관계

⑤ 水實土虛人(腑方 처방)

水實土虛人의 臟腑虛實 관계는 Figure 7과 같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小腸이 虛하고 胃가 實할 때가 基準이 되고, 치료 방법은 膽을 우선 補하고 大腸을 瀉하면 된다. 여기서 穴의 선택은 臟方의 경우와 같이 膽經의 穴중 木의 木穴인 足臨泣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大腸經의 穴중 金의 金穴인 商陽을 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水實土虛人의 腑方 처방이 된다.

足臨泣 補(木) 商陽 瀉(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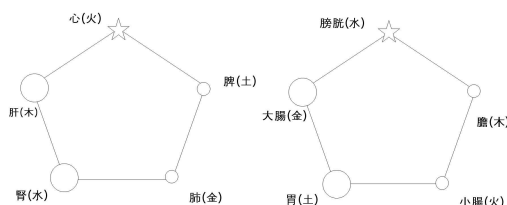


Figure 7. 水實土虛人의 臟腑虛實 관계

3. 五行和鍼法の 比較脈診法

지금까지 五行和鍼法の 臟方과 腑方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5가지 體質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五行和鍼法에서는 比較脈診法을 사용한다. 五行和鍼法の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五臟六腑의 활동은 脈으로 드러난다. 臟腑의 활동이 實한지 虛한지는 환자가 자각하지는 못하나 脈氣로 반드시 표현되어 그것을 診脈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¹⁸⁾. 이 診脈法은 脈의 虛實을 分別하는 法이니 필히 환자의 兩手의 脈을 동시에 진하면서 五行關係를 比較하여 찾아낸다.

比較脈診法은 환자의 病의 종류를 알아내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五臟六腑 중 어떤 臟腑가 根源이 되어서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比較脈診法은 病의 근본을 찾아서 主症으로 한다. 이 주증은 선천적 五臟六腑의 虛實을 말하는 것으로 母胎中에서 受하고 출생한 性形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比較脈診法으로 五人型으로 나누어 木實金虛人이라고 하면 水虛를 주증으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다양한 病症도 주 臟腑의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그 근본이 되는 것을 治療하면 충분히 치유된다. 五行和鍼法은 그 根源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된다.

比較脈診法은 難經의 寸口脈法을 사용하고 있다. 患者의 左脈을 心(寸) 肝(關) 腎(尺), 右脈을 肺(寸) 脾(關)으로 나누고 難經 75難의 相克理論에 따라 그 虛實을 비교하여 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의 다섯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각의 比較脈診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木實金虛人的 경우

五行和鍼法에서 木實金虛人的 虛實圖를 보면 木火는 實하고, 金水는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土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는 中臟器가 된다. 比較脈診法에서 左右寸脈인 心脈과 肺脈를 비교하면 心脈이 肺脈보다 크다. 그리고 左右關脈인 肝脈과 脾脈를 비교하면 肝脈이 脾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脾脈은 肝脈과 비교했을 때 虛한 상태인 肝脈보다는 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火實水虛人이 된다. 만약 肝脈이 金脈보다 크다면 木實金虛人이 된다.

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脾脈은 腎脈과 비교했을 때 虛한 상태인 腎脈보다는 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木實金虛人이 된다. 만약 腎脈이 脾脈보다 크다면 水實土虛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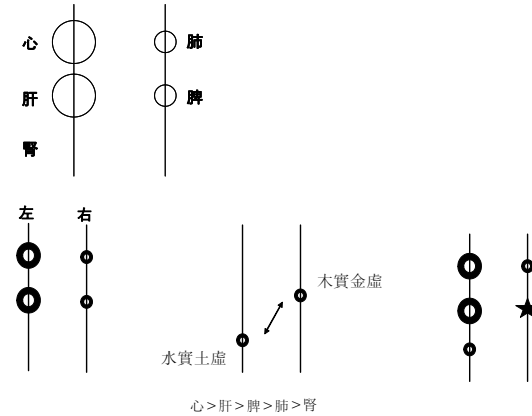


Figure 8. 木實金虛人的 比較脈診法

2) 火實水虛人的 경우

五行和鍼法에서 火實水虛人的 虛實圖를 보면 火土는 實하고, 木水는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金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는 中臟器가 된다. 比較脈診法에서 左右寸脈인 心脈과 肺脈를 비교하면 心脈이 肺脈보다 크다. 그리고 左右關脈인 肝脈과 脾脈를 비교하면 脾脈이 肝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脾脈은 肝脈과 비교했을 때 虛한 상태인 肝脈보다는 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火實水虛人이 된다. 만약 肝脈이 金脈보다 크다면 木實金虛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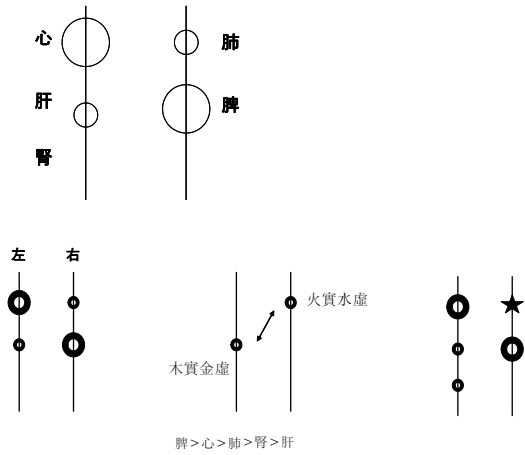


Figure 9. 火實水虛人の 比較脈診法

3) 土實木虛人の 경우

五行和鍼法에서 土實木虛人の 虛實圖를 보면 土金은 實하고, 火木은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水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는 中臟器가 된다. 比較脈診法에서 左右寸脈인 心脈과 肺脈를 비교하면 肺脈이 心脈보다 크다. 그리고 左右關脈인 肝脈과 脾脈를 비교하면 脾脈이 肝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腎脈은 心脈과 비교했을 때 虛한 상태인 心脈보다는 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土實木虛人이 된다. 만약 心脈이 腎脈보다 크다면 火實水虛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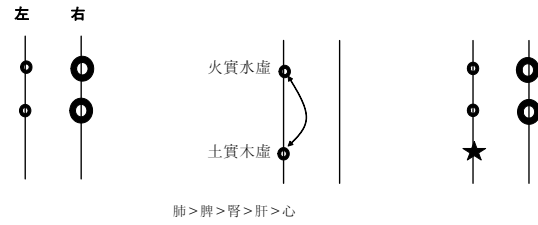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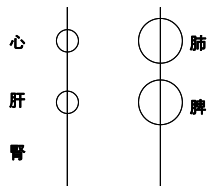


Figure 10. 土實木虛人の 比較脈診法

4) 金實火虛人の 경우

五行和鍼法에서 金實火虛人の 虛實圖를 보면 金水은 實하고, 土火은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木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는 中臟器가 된다. 比較脈診法에서 左右寸脈인 心脈과 肺脈를 비교하면 肺脈이 心脈보다 크다. 그리고 左右關脈인 肝脈과 脾脈를 비교하면 肝脈이 脾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肝脈은 脾脈과 비교했을 때 虛한 상태인 脾脈보다는 커야 한다. 하지만 金實火虛人の 경우 左右關脈 비교에서 벌써 확인 했으므로 더 이상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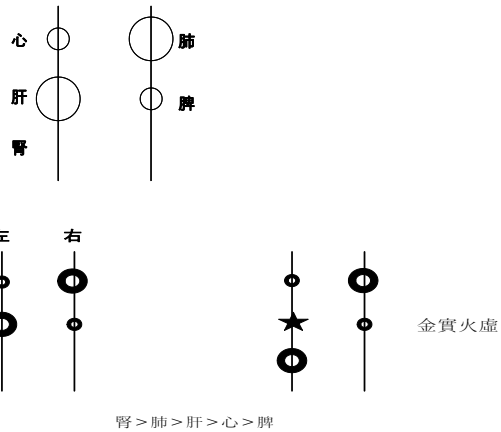


Figure 11. 金實火虛人の 比較脈診法

5) 水實土虛人の 경우

五行和鍼法에서 水實土虛人の 虛實圖를 보면 水木은 實하고, 金土은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火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는 中臟器가 된다. 比較脈診法에서 左右寸脈인 心脈과 肺脈를 비교하면 心脈이 肺脈보다 크다. 그리고 左右關脈인 肝脈과 脾脈을 비교하면 肝脈이 脾脈보다 크다. 水實土虛人の 경우는 中臟器 비교는 左右寸脈에서 했으므로 脾脈과 腎脈을 비교하면 된다. 脾脈과 腎脈을 비교하여 腎脈이 脾脈보다 크면 水實土虛人이 된다. 만약 脾脈이 腎脈보다 크면 木實金虛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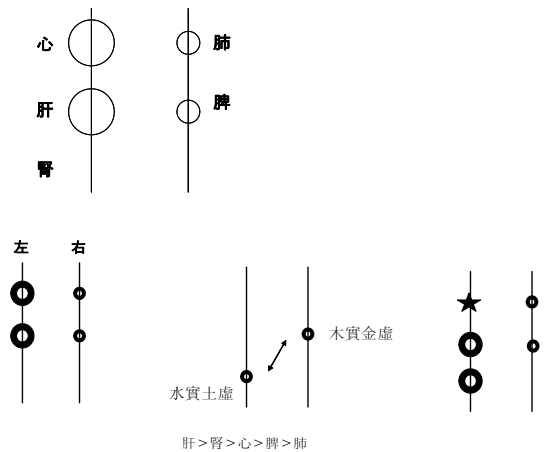


Figure 12. 水實土虛人の 比較脈診法

III. 고찰

五行和鍼法은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盛衰 및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근거로 해서 만든 五行鍼法이며, 각 體質을 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

人, 水實土虛人으로 나누고 이것을 比較脈診法으로 구분하는 鍼法이다.

五行和鍼法의 臟方은 難經 75難을 근거로 만들어지며, 五行相克의 원리를 이용한다. 難經의 75難에서 말하길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하면 瀉南方 補北方을 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東方實 西方虛는 증상을 나타내고, 瀉南方 補北方은 치료를 말한다. 즉, 臟方에서는 東方實을 木實, 西方虛를 金虛라고 하고, 이러한 상황을 木實金虛人이라고 했다.

腑方은 臟方의 五行虛實 관계를 통해 유추해서 알 수 있으며, 치료방법은 難經 69難에서 제시되어 있는 五行의 相生원리를 이용한다. 즉 五行和鍼法의 가장 큰 전제인 東方實(木實), 西方虛(金虛)를 腑方에서는 天干相合의 원리를 통해 金實, 火虛의 상황으로 보고 “虛者補之, 實者瀉之”의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한 것이다.

임상적 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使用한다. 예를 들어, 患者를 治療할 때 比較脈診法에 의해 木實金虛人으로 決定이 되면, 鍼 處方은 陰谷 補(水之水), 少府 瀉(火之火), 陽谷 補(火之火), 通谷 瀉(水之水)가 된다. 보통 臟方은 健側에 쓰며, 腑方은 患側에 使用한다. 왜냐하면 素問의 調經論에서 “通在於左 而右脈病者 巨刺之”라고 했으며¹⁹⁾, 五行和鍼法에서는 臟方을 主된 穴로 보기 때문이다. 火實水虛人인도 마찬가지로이다. 比較脈診法에 의해 상기 人이 決定되면 處方은 大敦 補(木之木), 太白 瀉(土之土), 足三里 補(土之土), 足臨泣 瀉(木之木)가 된다.

하지만 五行和鍼法에서 각각의 肝心脾肺

腎을 대표하는 木火土金水가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면 각 臟 안의 五俞穴도 木火土金水を 대표하므로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木實金虛人의 경우 腎의 五俞穴인 木火土金水인 湧泉 然谷 太谿 復溜 陰谷 중 陰谷 復溜는 虛하고 湧泉 然谷은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가름할 수 없는 太谿가 있다. 이것을 시간적 虛實의 추이로 보면 然谷 > 湧泉 > 太谿 > 復溜 > 陰谷 이 된다. 中臟器인 脾도 마찬가지이다. 臟器 자체는 不中他邪해서 虛實 파악이 불가능한 中臟器이지만 그 안의 五俞穴은 陰陵泉 商丘는 虛하고 隱白 大都는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알 수 없는 太白이 있다. 각각 Figure 13과 같은 五行의 虛實圖를 가진다. 그러면 木實金虛人의 경우 五臟인 肝心脾肺腎에서 각각의 木, 火穴은 實하고 金, 水穴은 虛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虛實圖가 생기게 된다. 만약 木實金虛人의 경우 經絡상 肝經을 취하고 싶다면 大敦 行間을 瀉하거나 中封 曲泉을 補할 수 있다.

五行和鍼法の 腑方에서도 大腸膀胱膽小腸胃를 대표하는 金水木火土가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면 각 腑 안의 五俞穴도 金水木火土를 대표하므로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木實金虛人의 경우 膀胱의 五俞穴인 至陰 通谷 束骨 崑崙 委中 중 崑崙 委中은 虛하고, 至陰 通谷은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가름할 수 없는 束骨이 있다. 이것을 시간적 虛實의 추이로 보면 崑崙 > 委中 > 束骨 > 通谷 > 至陰이 된다. 이것을 각각 정리해 보면 Figure 14와 같은 五行의 虛實圖(腑)를 가진다.

이것은 五行和鍼法을 임상적으로 運用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상기의 陰陽五行 虛實關係를 통한 診斷을 위해서는 陰陽五行, 臟象學說 및 經絡學說에 대한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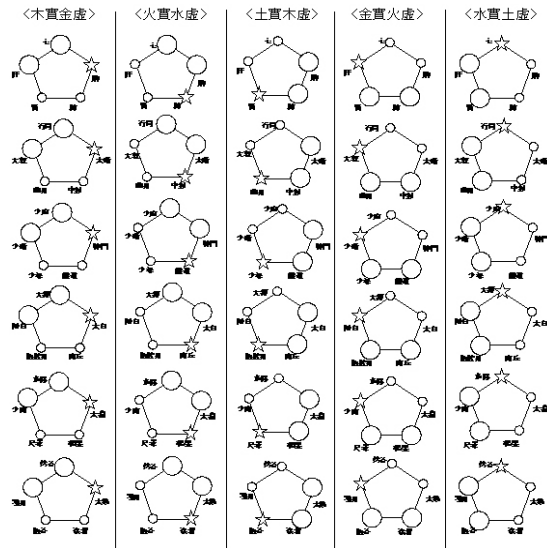


Figure 13. 五行의 虛實圖(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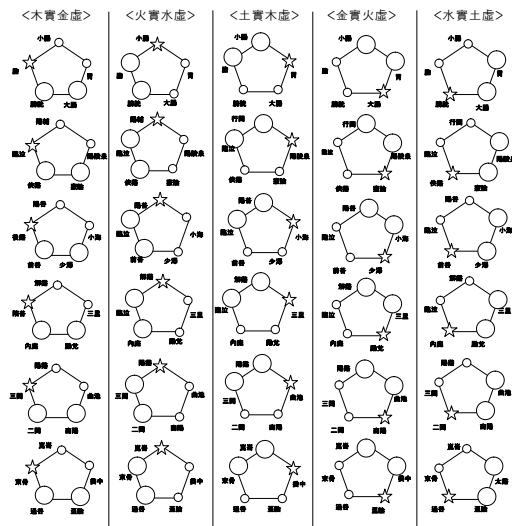


Figure 14. 五行의 虛實圖(腑)

IV. 결론

五行和鍼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五行和鍼法은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성쇠 및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이용하여 만든 五行鍼法이다.

둘째, 五行和鍼法은 臟方과 腑方으로 구성 되어 있다. 臟方은 難經 75難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腑方은 臟方の 五行虛實을 바탕으로 유추한다.

셋째, 五行和鍼法에서는 比較脈診法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유형(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으로 나눈다.

넷째, 다섯 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臟腑가 五行虛實을 나타낸다. 임상적 운용에서 경락상 선혈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생긴다. 하지만 상기의 陰陽五行 虛實關係를 통한 진단을 위해서는 陰陽五行, 臟象學說 및 經絡學說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번 논문은 2007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Grant No. AA133)

참고문헌

1.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俞穴을 이용한 鍼法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2) : 186-99.

2. 박은주, 조명래. 五行鍼法의 運用에 對한 <難經 ·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의 比較 考察.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6) : 251.

3. 송재훈. 和鍼法. 대구 : Readers and Leaders. 2003.

4.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 19(2) : 363-4.

5. 심성흠, 감철우.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腑方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5) : 1119-24.

6. 滑壽.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88, 92-4.

7.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75難을 이용한 五行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2) : 123-35.

8. 難經志研究. 本間祥白. 서울 : 정언출판사. 1985 : 391-4, 412-22, 480-92.

9. 許浚.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1999 : 300-2.

10. 金達鎬. 舍岩道人鍼法. 부산 : 小康. 2003 : 8-17.

11.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難經本義. 대전 : 주민출판사. 2003 : 233-6.

12. 김재홍, 조명래. 五行鍼을 이용한 六氣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3 : 20(1) : 61-73.

13. 李梴. 新校 編註醫學入門 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96 : 180.

14. 윤창렬. 하도와 (河圖) 낙서에 (洛書) 나타난 음양오행에 (陰陽五行)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논문집. 1995 : 3(2) : 103-24.
15. 권창준. 간지의론(개정증보판). 부산 : 청화학술원. 2003 : 16.
16. 윤창열. 醫哲學.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주민출판사. 2005 : 101.
17. 楊維傑. 楊維傑 全集 3. 鍼灸寶典. 일산 : 대성의학사. 2007 : 303-6.
18. 박사현, 신정철, 류충열, 조명래. 人迎氣口脈診의 五行鍼 運用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4) : 149-57.
19. 류영수. 巨刺法에 의한 電鍼刺戟이 白鼠의 formalin 誘發 痛症에 對한 抑制機轉. 대한한의학회지. 2003 : 24(2) : 193-4.